
커뮤니티 상상하기: 디자인 콜렉티브
〈BRAVE NEW ALPS〉 사례를 중심으로
Imagining Community:
A Case Study on the
〈Brave New Alps〉

박성원
Park Sungw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투고일 2022년 12월 31일 / 심사일 2023년 1월 15-31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31일
Received Date 31 Dec, 2022 / Reviewed Date 15-31 Jan, 2023 / Accepted Date 31 Jan, 2023
p-ISSN. 2765-2572 / e-ISSN. 2765-7825

PP:110-121

요약

커뮤니티를 해체 시켰던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커뮤니티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 디자인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콜렉티브, <Brave New Alps>를 중심으로 최근 커뮤니티 디자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 보자.

Abstract

The time of the pandemic, which has disrupted communities, has made us aware of the numerous problems we need to address through community building. How can we design communities? Let's explore recent cases of community design, focusing on the design collective "Brave New Alps" from Italy, which continues to experiment with community design, and imagine what kind of community we ca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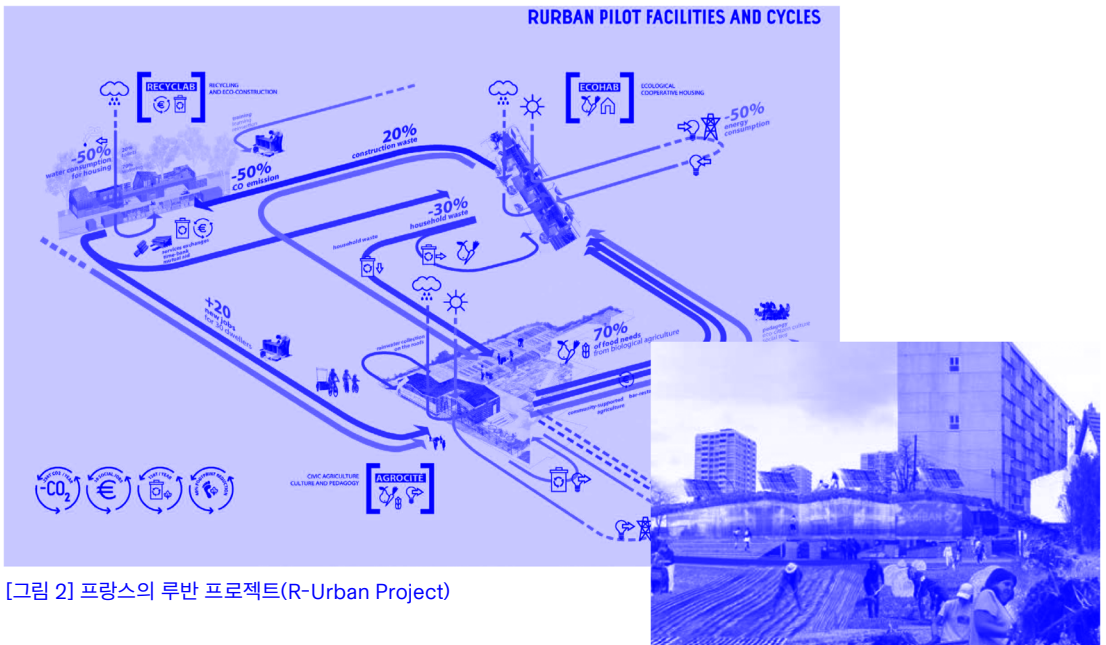
[그림 1] 성 베네딕도회와 떼제 공동체(The Order of Saint Benedict and the Community of Taizé)

커뮤니티 디자인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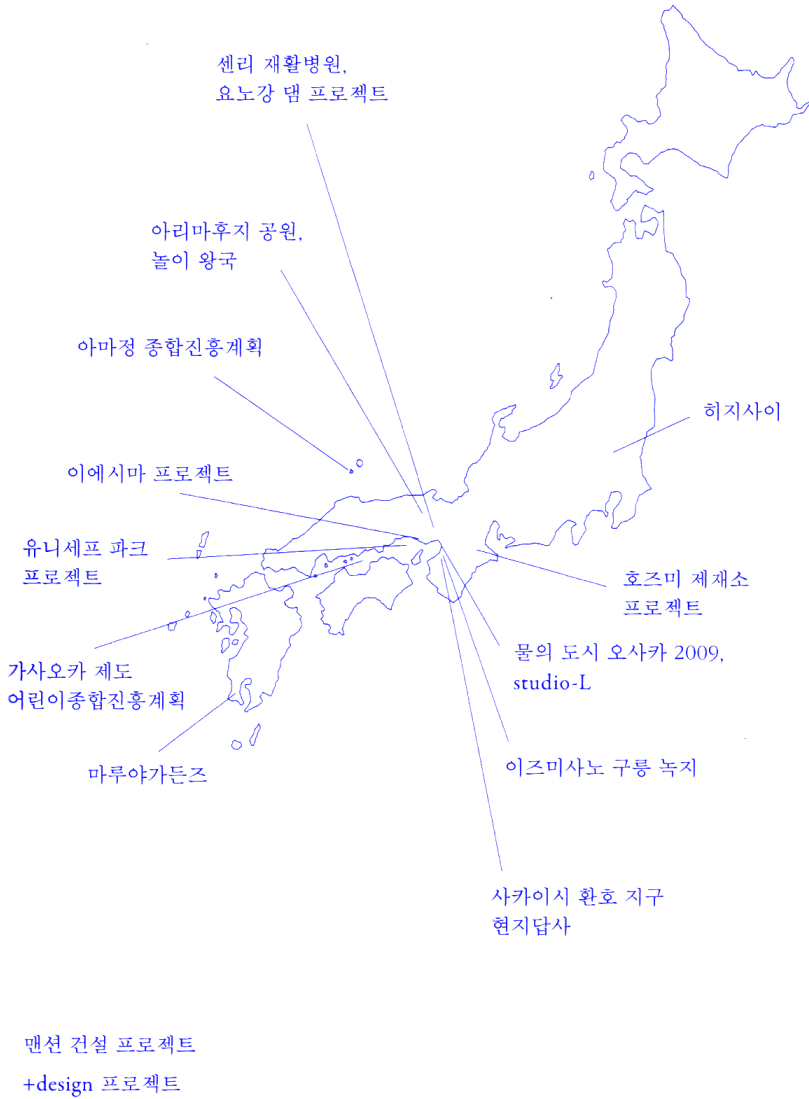
디자인계에서 조형이나 인터페이스 등이 아닌 커뮤니티를 디자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이루어져 왔다. 커뮤니티 디자인의 시작은 어디일까? 정확한 시작은 알 수 없지만, 공동체를 조직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초기 모델 중 하나는 수도원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베네딕도 수도 규칙』을 기반으로 형성된 성 베네딕도회(Order of Saint Benedict)부터 에큐메니컬 성격의 떼제 공동체(Taizé Community)[그림 1]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공동체들은 종교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문제해결 도구로 커뮤니티를 조직했다.

2000년대 이후의 커뮤니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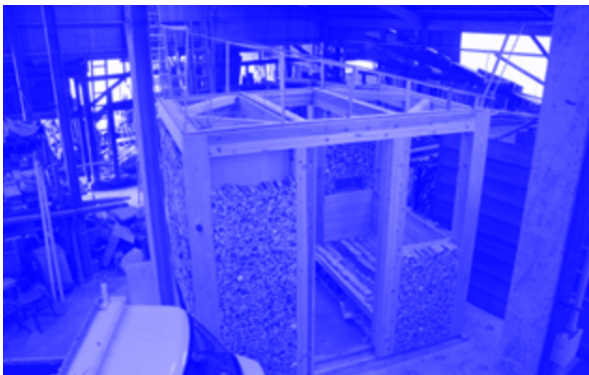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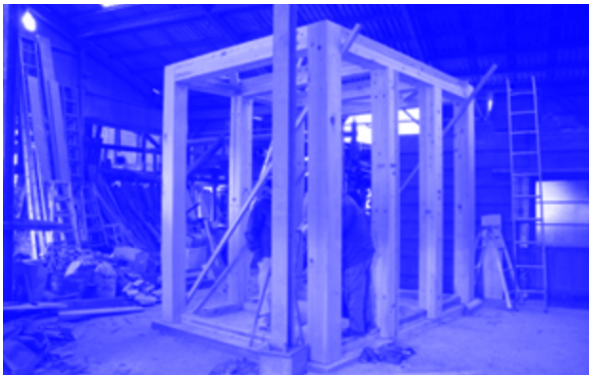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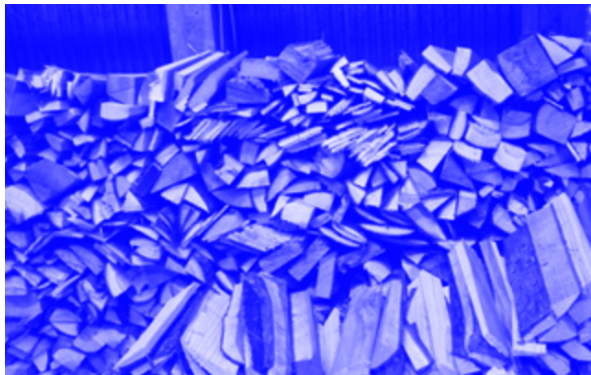
현대 디자인계에서 본격적으로 커뮤니티를 활용한 문제해결 노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다. 프랑스의 루반 프로젝트(R-Urban Project)[그림 2], 이탈리아 밀라노 스카르셀리니 거리 공동 주택 프로젝트, 영국의 컴퍼니드링크 프로젝트(Company Drinks Project)[그림 3], 오스트리아의 소셜 퍼니처 프로젝트[그림 4]부터 야마자키 료의 저서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소개된 일본의 프로젝트[그림 5-6]들까지 수많은 사례가 커뮤니티를 디자인 함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팬데믹 시간을 넘어서 최근에도 다양한 디자이너들과 콜렉티브들은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2] 프랑스의 루반 프로젝트(R-Urban Project)



[그림 5]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 맵



[그림 6] Hozumi Woodmill Project(사진 출처: tapie)



[그림 7] 커뮤니티 아카데미, 라 포레스타(La Foresta: Accademia di Comunita)



[그림 8] 에코랩(Ecolab)

이탈리아 디자인 콜렉티브 Brave New Alps

이 중 눈에 띄는 그룹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레이브 뉴 알프스(Brave New Alps)다. 브레이브 뉴 알프스(이하 BNA)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과 자율디자인랩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최근의 커뮤니티 디자인의 일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BNA는 2017년부터 라 포레스타(La Foresta)라는 프로젝트[그림 7]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라 포레스타를 커뮤니티 아카데미(Accademia di Comunità)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의 모태가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커뮤니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 포레스타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이 교류하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의 전달과 공동의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지 고민한다. 이탈리아 북부의

한 소도시 로보레토(Rovereto)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라 포레스타는 시의회로부터 제공받은 기차역 옆 잉여 공간을 커뮤니티 디자인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BNA가 라 포레스타를 통해서 진행한 최근 프로젝트들은 대표적으로 에코랩(Ecolab)[그림 8], 지역경제를 위한 알파인 연구소(Laboratorio Alpino per Economie di Comunità), 탄산 커뮤니티(Comunità Frizzante)[그림 9], 유랑하는 화덕(Forno Vagabondo)[그림 10-11] 등이 있다. 프로젝트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이 경험에 초점을 두는 배경에는 약자에 관한 독창적인 정의에 기인하는데, BNA가 정의하는 '새로운 약자(New Poverty)'는 장애나 경제적 빈곤이 아닌 '새로운 자기 계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뜻한다. 또한 이들이 제공하는 경험이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림 9] 탄산 커뮤니티(Comunità Frizzante)



[그림 10] 유랑하는 화덕(Forno Vagabondo)



[그림 11] 유랑하는 화덕(Forno Vagabondo)

세상을 향해 말하고자 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커뮤니티 디자인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 주제전, <길몸살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작업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율디자인랩에서 최근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한 <잠깐, 섬 프로젝트(Wait, Island Project)>[그림 12]와 2022 수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멈추면 생동>에 참여한 <뽀뽀 커뮤니티(Penpal Community)>[그림 13]도 디자인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과 이를 통해 발설되는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노력한 사례들이다. 최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연대(solidarity)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더욱 빈번하게 들린다. 연대를 향한 목소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동시대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디자인 과제의 많은 부분이 커뮤니티를 상상함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그림 12] 잠간, 섬 프로젝트(Wait, Island Project)



[그림 13] 뽀뽀 커뮤니티(Penpal Community)